



김태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0년 성과와 발전방향”

우리사회는 오늘날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탈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은 통계적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패널조사는 시간을 두고 동일 표본을 반복 추적하는 조사로, 단일시점에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는 횡단 자료의 특성과 단일 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는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모두 지닌 자료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빈곤층의 소득 및 경제활동, 가족구조 변화 등에 대한 동태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통계청 조사들은 조사 내용이 매우 개괄적이고, 조사 주기별로 표본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패널조사는 인간행동의 변화과정과 특정기

간의 효과나 연령효과, 코호트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인간행동 및 사회현상을 포착하는데 보다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패널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의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나 미국의 PSID(Panel Study Income Dynamics) 등의 패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 자활패널을 통합하여 ‘한국복지패널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때부터 한국복지패널이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사회의 대표적 패널로서 자리잡았고, 여러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표본규모가 크며, 패널로는 드물게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은 7,072 가구를 대상으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패널을 구축하였고, 현재에도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조사이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패널조사에서는 표본탈락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유지율은 2차 92.1%, 3차 86.7%, 4차 83.9%, 5차 80.3%이었고, 최근 10차 조사는 67.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패널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의 PSID(Panel Study Income Dynamics)나 독일의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표본추출시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50%를 할당했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경제활동, 소득, 건강 및 의료, 교육, 주거, 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이외에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통계학, 인구학, 보건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구자, 정책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학술 연구들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는 매년 개최되는, 올해로 '제 8차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0차 조사기준, 67.31%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을 보이는 한국복지패널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안정기에 접어든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복지패널의 영문판을 준비해 왔고, 곧 유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외의 여러 패널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한국복지패널이 사회통계자료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패널의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수준임을 보이는 것은 사회통계자료로서의 신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행정데이터와의 결합이나 연계를 통해서도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한국복지패널이 한국사회의 각종 정책형성 및 평가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빈곤 및 교육불평등의 대물림, 복지의존성의 문제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연구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는 세대간 연구를 가능케 하는 패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